

특별인터뷰 - 윤선규 말레이시아지부 회장

“국리민복 가치관 삼아 대한민국 발전상 널리 알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박종환 총재로부터 제2대 말레이시아지부 회장 임명장을 받은 윤선규 지부회장(56세)을 만나 자총회장으로서의 각오와 앞으로의 운영방향 및 중점 사업을 들어봤다. 윤 회장은 말레이시아 한인사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인회장을 맡아왔고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상임이사를 수행하는 등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알리기에 앞장선 명망있는 지역인사로 유명하다. 평소 튼튼한 국가안보의식을 기반으로 조국의 발전상을 현지사회에 전하고 각종 사회봉사에도 열성인 그의 행적을 쫓아본다.

• 먼저 말레이시아지부 회장으로서 소회와 각오부터 듣고 싶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과 세 번의 한인 회장직을 지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높아져 조국에 대한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를 목표로 하는 자총의 회장직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국민운동단체이며 유엔 ECOSOC(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NGO인 자총의 위상에 걸맞게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회원들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기회를 주신 박종환 총재님을 비롯한 자총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습니다. 이를테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강연회’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싱가포르, 태국, 라오스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의 자유총연맹 지부와 연계하는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리민복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연대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총의 국제협력 활동으로 기아질병 퇴치는 물론 환경보호 등 지구촌의 공동숙제를 해결해 가는데 작은 밑알이 되겠습니다.”

• 임명 이후 실제로 느끼신 자총의 위상과 역할은 어떠한지요?

“자유총연맹의 유래와 역사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유총연맹 활동을



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유총연맹 가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혼자 묵묵히 나라를 알리기 위해 고민해오던 저를 더 큰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된 것 같아 마음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조국의 350만 명의 회원이 새로운 가족이 되어 기쁩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종환 총재께서 설파하시는 ‘국리민복’의 시대정신에 깊이 공감하며 자총의 모든 활동이 여기 계신 모든 교민들과 회원들의 행복은 물론 대한민국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가치 널리 알릴 터 동남아시아에 국리민복 가치확산시키는 국제 네트워크 구축해야

• 말레이시아지부 회장을 맡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지난 20여 년간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서 생활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현지의 고아원을 찾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경찰청에도 사회안전망 구성에 보태달라며 기부활동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식을 알리기 위해 김치만들기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K-POP가수들의 콘서트 지원 등의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고 우리의 음식과 문화를 사랑해주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제 활동 덕분에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한국자유총연맹 지부장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엔 주저주저했지만 뉴스를 통한 자유총연맹의 국내외적 대외활동을 보며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확산에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지며 회장직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중점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계속해왔던 현지의 고아원 장학금지원 사업과 경찰청 기부금 기탁 및 한식요리 체험학습, K-POP 콘서트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국리민복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신사업을 계획하고 있

통해 교민들이 더욱 더 애국심을 가질수 있도록 교육을 펼쳐겠습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걸친 자총의 해외지부 구성을 보고 말레이시아지부도 이에 동참해 잦은 국제교류로 자유총연맹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 지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현안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장직을 맡은 기간이 짧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지 교민들에게 자유총연맹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선 회원영입이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을 많이 가입시켜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민사회에서 명망있는 인사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셔 지부활동에 자문도 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직의 기본 토대가 마련될 것이고 앞에서 언급한 국리민복의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말레이시아 현지에 전

■ 주요 경력 ■

- 2012~2016 말레이시아 한인회장
- 2017 중소기업중앙회 말레이시아지부 회장
- 2018 말레이시아 한인 요식업 중앙회 회장
- 현)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상임이사
- 현)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쿠알라룸푸르 지회 부회장
- 현) 다오래그룹 회장
- 현) 한국자유총연맹 말레이시아지부 회장



◇윤선규 지부장은 말레이시아 현지 고아원에 장학금과 위문품을 전달해오고 있다.